

# 고려 시대 음악 918~1392년

고려 시대의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


고려 시대에는 통일 신라의 전통을 이어받아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국가 행사인 팔관회와 연등회가 확대되었다. 중국 송나라와 음악적 교류가 활발해 아악과 당악이 유입되었고 아악, 당악, 향악으로 구분되어 발전하였다. 또 '정재'가 발달하고 '고려 가요'가 유행하였다.



▲ 팔관회



▲ 고려가요 '청산별곡'



▲ 당악정재 '포구락'

## 아악

### 문묘제례악

「문묘제례악」은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던 악(樂)·가(歌)·무(舞) 형태의 음악이다. 고려 예종 때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아악이다. 문묘제례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성균관에서 지낸다.

❖ 「문묘제례악」 중 '황종궁'을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.



율명 : 黄 南 林 姑  
황 남 임 고

▲ 「문묘제례악」 중 '황종궁'

## 당악

### 보허자

「보허자」는 궁중의 각종 의식과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사용된 관악 합주곡으로, 고려 때 송나라에서 유입되었다. 조선 후기에는 궁중 무용의 반주 음악에 노랫말을 붙여 불렀으며 이를 '수악절창사'라고 한다.

❖ 「보허자」를 감상하고, 사용된 악기들을 알아보자.

▼ 「보허자」 연주 장면

